

##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눅 11:10).

: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궁핍을 느끼는 가운데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sup>15</sup> 약 1:5. 그러나 구하기 전에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를 즉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인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sup>눅 11:13</sup>.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sup>눅 11:10</sup>.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감사하며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신의 논리로 영적인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복음만 가르치시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거룩을 말하면 비참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느끼기 때문이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그 빈곤을 인정하고 양식을 구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궁핍 때문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비참할 정도의 빈곤 때문에 구할 뿐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눅 11:10)

###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 묵상 제목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원제목에서 어제는 ‘다음에 할 일’(what next?)을 물었다면, 오늘은 ‘다음에 할 최선의 일’(the next best thing to do)을 묻고 있습니다.

“만일 영적인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도 역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손’만 채우시는 분임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봇는 대로 채워지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 모세를 부르셨던 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궁핍한 때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한없이 추락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그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할 때 찾아오셔서, 그의 빈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줘어 주셨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본문 말씀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갈급’의 상태, 구하는 지경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아무 것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상태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오래 전 읽었던 강준민 목사님의 책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글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위기의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꼭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영적 궁핍’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비참할 정도의 빈곤 때문에 구할 뿐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영적 갈급함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은 저의 허물과 곤궁함을 아시고, 제가 얼마나 많은 죄와 악에 빠지고 얼마나 자주 짓눌리며 유혹받고 동요하고 더러워지는지를 아십니다. 치료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를 위로하고 도우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제 모든 내면의 생각을 여시며, 홀로 저를 온전히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에게 아립니다. 주님은 제게 어떤 선한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지, 제가 모든 덕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다. 보소서. 저는 가련하고 별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하는 주린 자를 떠이시고, 저의 차가운 마음을 주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태우시며, 저의 몽매함을 주님의 임재가 밝히는 광채로 비추소서.

아직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급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직접 채우실 테니 기뻐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당신의 영은 지금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생각나는 갈급함을 적어봅시다. 만일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갈급함’을 구하십시오

묵상레시피 | 예레미야 33:1-9 + 누가복음 11:1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3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응답들은 무엇입니까? (6-9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부르짖으라고 명하십니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3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2절).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덧붙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렘 32:17-19도 동일 맥락).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신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구하는 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요14:13).